

쓰치자키 공습

쓰치자키는 제 2 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 년,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항구 근처에 있었던 석유정제 시설은 당시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에 미군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. 공습과 그 후 1 주일 가까이 계속된 화재로 250 명 이상이 사망, 20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

공격은 8 월 14 일 오후 10 시 30 분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. 미 공군 제 315 폭격단은 쓰치자키에 12,047 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. 폭격기 132 기 중 대부분은 보잉 B-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과 같은 기종이었습니다. 공격 후 12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쇼와 천황(1901~1989)이 일본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. 이것이 제 2 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공습이었습니다.

석유정제소 근처에 있던 창고 한 곳은 폭격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. 2017 년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손상된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천장의 들보 일부가 쓰치자키 미나토 역사전승관에 이전되었습니다. 꺾이고 일부가 녹은 기둥은 지금도 역사의 비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